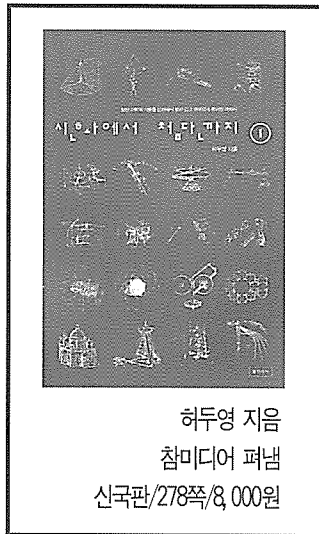


첨단 과학의 기원을 신화에서 찾아,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과학사 신화에서 첨단까지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시대에 과학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고 난해해지면서 과학기술인들 스스로도 인접 과학기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 문의한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과학기술과 일반인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 책은 과학과 기술은 어렵고 무미건조하며 재미없다는 그릇된 편견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 ‘첨단과학의 기



허두영 지음
참미디어 펴냄
신국판/278쪽/8,000원

원을 신화에서 찾아,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과학사라는 부제에서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자는 각각의 분야별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과 신화의 세계를 접목시켜 첨단과학의 기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다.

이 책은 신화와 과학의 재혼을 머리글로 하여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첨단과학과 신화의 대화를 특이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수려한 필치로 엮고 있다. 보기를 들면 태초의 빛에서 레이저까지는 빛에 대한 도전이라는 발상과 인식에서 전개하였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천지창조 신화와 현대 과학이 가정하는 우주탄생 학설은 빛을 소재로 삼고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첫 단계에서 빛을 만들어 냈고, 현대 과학은 태초의 폭발 결과 빛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이 태초의 빛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를 따라 우주 전역으로 퍼지면서 1백만년 전 인류의 조상을 비추었고 오늘날에는 그 후손들을 비추고 있다. 또한 ‘나르시소스의 연못에서 홀로그램피카지’의 경우 저자는 나르시소스가 자아 도취에 빠진 명

청한 청년이 아니라, 보다 선명한 영상을 추구하는 과학자의 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나르시소스가 자신의 모습에 반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영상에 빠져 죽었다며 ‘나르시소스 Narcissus Complex’는 실물보다 영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현실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 책은 레이저, 초음파,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멀티미디어, 광통신, 전파통신, 종합정보통신망, 홀로그래피, TV, 가상현실, 신소재, 반도체, 초전도체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의 역사를 분야별로 조명하였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은 절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저자의 시각에 동의하면서 “과학은 없다. 어느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첨단으로 혼자 치닫는 과학은 미래학의 별장에서 황당한 공상이 됐다. 때때로 과학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정신병자가 되기도 하고, 대중을 현혹시키는 첨단 미신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학을 고집센 과학자의 독방에서 탈출시켜 철학과 예술과 종교와 역사의 세계로 날려 보내고 피뢰침하고 우직한 과학에게 쿨대 높은 철학이나 사치스러운 예술이나 내숭떠는 종교나 도도한 역사의 방에 몰래 들어가라고 꼬드기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전공에 관계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안목을 넓혀줄 것이다. ⑤7

朴澤奎(건국대 이과대 화학과 교수)